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과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ttachment with Parents and Educational Gender Egalitarianism on
Achievement Motivation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 교수 장 영 은**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조 교수 성 미 영***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수 권 회 경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istant Professor : Chang, Young-Eun

Dep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

Assistant Professor : Sung, Mi-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Kwon, Hee-Kyung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achment, educational gender egalitarianism,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 total of 338 students from the Seoul and Kyungnam area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found that male students showed lower levels of mother attachment and educational egalitarianism and higher levels of achievement motivation compared to female students. For female students, parental attachment and educational egalitarianism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chievement motivation; however, no such relationships were detected in male students. For male students, social and demographic variables were more predictive of achievement motivation than attachment or educational egalitarianism.

▲주요어(Key Words) : 부모와의 애착(attachment with parents), 성취동기 (achievement motivation),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gender egalitarianism in education)

* 이 논문은 2009~2010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 주 저 자 : 장영은 (E-mail : yechang@cau.ac.kr)

*** 교신저자 : 성미영 (E-mail : minie@skuniv.ac.kr)

I. 서론

성취동기는 과제해결능력,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성취동기는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사회적 유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높은 성취동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끈기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된다(이운경·도현심, 2005).

왜 성취동기를 연구해야 하며 성취동기의 성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학생은 대학의 졸업과 더불어 곧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성취동기는 대학생들이 취업과 진로 결정에 있어 중요한 동인이 되므로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실업률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고학력 여성이 취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성취동기 수준에서의 성차가 존재하기 때문은 아닌지에 대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성취동기 수준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청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생의 경우 남자 대학생의 성취동기가 여자 대학생에 비해 더 높고(이재창·유계식, 1996; Fan & Zhang, 2009), 자신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취업에 대해 성숙한 태도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유계식·이재창, 1997)을 고려해 볼 때, 남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여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 대상으로 이들의 성취동기 수준에 초점을 두고, 성취동기 수준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및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업성취나 부모자녀관계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박영신·김의철, 2003; 이운경·도현심, 2005; 탁수연 등, 2006; Caldwell & Obasi, 2010; Turner et al., 2009; Zimmerman et al., 1992). 예를 들어,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성취압력, 부모에 대한 죄송함이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이로 인해 높아진 성취동기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탁수연 등, 2006).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일 때, 대학생 자녀의 성취동기가 증가하며, 이는 보다 나은 학업 성취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다(Turner et al., 2009). 성취동기와 부모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또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수준이 높고, 지적 활동에 대해 칭찬을 할 경우 자녀의 성취동기가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성취동기와 부적인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도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이운경·도현심, 2005; Zimmerman et al., 1992).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녀의 성취동기 향상에 도움이 되고(지효숙, 2008),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부모 상실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 하는데 성취동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도남희·박경자, 2009). 이처럼 부모의 존재 여부, 어머니의 기대수준, 아버지와 의사소통방식 등의 부모 관련 변인이 청소년과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관련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 역시 자녀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양한 변수들이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부모와의 애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적 환경 요소로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주목하였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생애 초기 양육자의 존재와 민감성에 따라 자신에 대한 상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Bowlby, 1982; Bretherton, 1991). 이러한 자아개념은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학업을 성취하고 미래에 대한 성취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Bowlby(1982)는 모든 연령의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접근성 및 반응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더 나은 사회적, 정서적 적응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기의 애착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후 연구에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애착은 새로운 환경을 독립적으로 탐색하고 통제 하는데 중요한 안전기지로 작용함을 밝혀왔다(이사라·박혜원, 2005; Armsden & Greenberg, 1987; Blustein et al., 1995; Greenberg et al., 1983).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주변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며 목표를 성취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Blustein et al., 1995).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 자존감과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가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도전에 대한 아동의 선호에 애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ong et al., 200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와의 애착과 성취동기 간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개인적, 사회적 자아정체성 발달을 예측하며(Lapsley et al., 1990),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래와 형성한 안정된 애착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대처능력,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이라는 자아개념의 여러 차원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Gomez & McLaren, 2007; Paterson et al., 1995). Leamer와 Kruger(1997)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애착과 학업동기 간의 관계를 밝혀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

다. Speirs Neumeister와 Finch(2006)는 SAT 점수 상위권 학생들을 분석하여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가 지각하는 애착과 완벽주의라는 매개변인을 통하여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반면 Gramzow(2002)의 종단연구에서는 애착과 성취동기 간의 직접적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 애착이 성취동기, 특히 진로선택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관련변인에 대해 밝혀진 바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성취동기의 상관관계 강도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지혜, 2009), 청소년 및 성인기에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자아개념이나 진로의식성숙도와 애착의 관련성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학생의 경우에 애착이 자아개념에, 그리고 다시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남학생의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밝혀졌다(장영은, 2010).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간의 관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그 관계의 강도가 더 강함을 밝혀졌으나(Laible et al., 2004), 국내의 연구를 아울러 부모-자녀 애착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에서의 성차에 대한 실증적 결과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대학생의 성취동기를 예측하는 또 하나의 변인으로서 본 연구는 양성평등의식에 초점을 두었다. 양성평등의식은 여성과 남성이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믿음인 동시에, 성차별적인 행동을 승인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다(곽경숙·한아름, 2007; 김양희·정경아, 2000). 양성평등의식은 대학생 및 성인의 성역할 고정관념(권희경, 2006), 성인지 태도와 행동(김원경, 2008; 이은희, 2005), 심리적 태도(이경순·정성진, 2006; 홍기원, 2001)와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진로 효능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재순, 2007; 정영주, 2009). 성역할의 차이가 아닌 평등성에 주목한 학자들(김양희·정경아, 2000; Beere et al., 1984; King & King, 1997)은 기존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이 중성적이거나 성인지적이라기 보다는 성차별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성차별적인 관점을 배제한, 성인지적이고 성중립적인 관점에서의 양성평등의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국형 양성평등의식 척도를 제안한 김양희와 정경아(2000)는 양성평등의식을 가족, 교육, 직업, 사회문화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은 교육현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능력에 대한 인식, 학생의 능력과 적성, 전공에 대한 양성평등적 상황에 대한 지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노년층보다는 청장년층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더 양성평등한 태도를 보였다(김양희·정경아,

2000). 이러한 결과는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의 수준에 따라 성취동기 역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성취동기와 학업성취간의 관련성(탁수연 등, 2006), 그리고 연구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양성평등의식의 다른 하위영역보다 교육영역에 초점을 두고 성취동기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비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여성의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양성평등의식은 성역할 태도와 유사한 개념이면서도 '전통적', '비전통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고와 신념 및 행동 체계의 연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동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고,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여자 대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의식은 우리 사회에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 및 경제적 지위를 성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취동기에서의 성차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청년기 대학생의 발달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생의 성취동기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검토하고자 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취동기,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남녀 대학생의 성취동기는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수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연구문제 3>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은 남녀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과 경남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09년 10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수도권 2개 대학교와 경남 지역 5개 대학교의 강의 시간을 통하여 설문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학생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34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4부를 제외한 338부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정보를 제공한 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38)

구 분		명(%)	구 분		명(%)
성별	남자 대학생	102(30.2)	전공	인문사회계열	227(67.2)
	여자 대학생	231(68.3)		이공계열	105(31.1)
학년	1학년	43(12.7)	지역	수도권	212(62.0)
	2학년	87(25.7)		경남	125(37.0)
	3학년	119(35.2)			
	4학년	85(25.1)			
연령	18~20세	123(36.4)	가족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6(10.7)
	20~22세	139(41.1)		200만원~300만원미만	67(19.8)
	23세~25세	58(17.2)		300만원~400만원미만	93(27.5)
	26세 이상	15(4.4)		400만원~500만원미만	52(15.4)
				500만원~600만원미만	37(10.9)
		600만원 이상	35(10.4)		
아버지 직업	판매서비스직	61(18.0)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144(42.6)
	노무직	53(15.7)		판매서비스직	62(18.3)
	사무직	54(16.0)		노무직	30(8.9)
	전문기술직	36(10.7)		사무직	28(8.3)
	관리직	67(19.8)		전문기술직	25(7.4)
	기타	55(16.3)		관리직	11(3.3)
		기타	30(8.9)		
아버지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6(10.6)	어머니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51(15.0)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2(45.0)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6(60.9)
	대학교 졸업 이하	110(32.5)		대학교 졸업 이하	66(19.5)
	대학원 이상	33(9.8)		대학원 이상	10(3.0)

2. 측정도구

1)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Spence와 Helmreich(1983) 등이 개발하고 권회경(1997)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는 욕구를 측정하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형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응답 가능 범위는 19점에서 9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음을 뜻한다. 신뢰도(Chronbach's α) 계수는 .80이었다.

2)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애착은 Armsden과 Greensberg(1987)가 개발한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문항 중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애착을 응답하는 각 25문항의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IPPA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과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의사소통의 정도, 신뢰, 그리고 소외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형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응답 가능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뜻한

다. 신뢰도(Chronbach's α) 계수는 아버지와의 애착이 .93, 어머니와의 애착은 .92였다.

3)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본 연구에서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은 김양희와 정경아(2000)가 개발한 한국형 양성평등 척도 중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척도는 교육현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능력에 대한 인식, 학생의 능력과 적성, 전공에 대한 양성평등적 상황에 대한 지지도 등을 측정하는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형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응답 가능 범위는 20점에서 10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뜻한다. 신뢰도(Chronbach's α) 계수는 .87과 .82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작성, t-검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성취동기,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수준

성별에 따라 대학생의 성취동기,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조사대상 대학생의 성취동기 평균은 68.1점(SD=8.3)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부모와의 애착 평균은 어머니 96.2점(SD=15.0), 아버지 91.1점(SD=16.0)으로 나타나 모두 중간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는데, 어머니와의 애착 수준이 아버지와의 애착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의 평균은 82.8점(SD=10.5)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성취동기, 어머니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는 남자 대학생(M=71.0, SD=8.6)이 여자 대학생(M=66.6, SD=7.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어머니와의 애착은 여자 대학생(M=97.2, SD=14.6)이 남자 대학생(M=93.7, SD=15.5)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역시 여자 대학생(M=85.8, SD=8.4)이 남자 대학생(M=75.4, SD=11.1)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한편, 아버지와의 애착 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의 관계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과 대학생의 성취동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세 변수 및 성별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성별은 t-검증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취동기와는 부적적으로($r=-.24, p<.01$), 어머니와의 애착($r=-.12, p<.05$) 및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r=.14, p<.001$)과는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대학생의 성취동기는 어머니와의 애착($r=.16, p<.01$) 및 아버지와의 애착($r=-.16, p<.01$)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머니와의 애착과 아버지와의 애착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두 변수가 회귀분석에서 통제될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은 어머니와의 애착($r=.21, p<.001$) 및 아버지와의 애착($r=.18, p<.01$)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성취동기와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

<표 2>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성취동기,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n=338)

구 분	전체 M(SD)	남자 대학생 M(SD)	여자 대학생 M(SD)	t
성취동기(19~95점)	68.1(8.3)	71.0(8.6)	66.6(7.7)	4.62***
어머니와의 애착(25~125점)	96.2(15.0)	93.7(15.5)	97.2(14.6)	-1.96*
아버지와의 애착(25~125점)	91.1(15.9)	90.5(17.1)	91.2(15.4)	-.38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20~100점)	82.8(10.5)	75.4(11.1)	85.8(8.4)	-9.43***

*p<.05, ***p<.001

<표 3> 대학생의 성취동기,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간의 상관관계

변 수	1	2	3	4
1. 성별 ^a	-			
2. 성취동기	-.24**	-		
3. 어머니와의 애착	.12*	.16**	-	
4. 아버지와의 애착	.03	.16**	.69***	-
5.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47***	.05	.21***	.18**

*p<.05, **p<.01, ***p<.001

a. (1=여성, 0=남성)

의 양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성취동기가 어머니와의 애착($r=.22, p<.001$), 아버지와의 애착($r=.17, p<.05$),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r=.14, p<.05$)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반면, 남자 대학생의 경우 성취동기는 어머니와의 애착, 아버지와의 애착 및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취동기의 평균에 유의한 성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취동기와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의 관계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성취동기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성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3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통제 변수로 투입되었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학년, 연령, 가족소득,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이었다. 지역과 전공은 통제 변수로서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 아버지와의 애착이 투입되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투입되었다. 각 단계별로 독립변수가 추가 투입됨에 따라 회귀 모형의 설명력(R^2)이 유의하게 증가하는지와 함께, 최종 회귀분석 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에

<표 4>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성취동기,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간의 상관관계

변 수	1	2	3	4
1. 성취동기	-	.22**	.17*	.19**
2. 어머니와의 애착	.16	-	.66***	.14*
3. 아버지와의 애착	.19	.76***	-	.14*
4.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19	.24*	.28**	-

주. 대각선 위쪽은 여자 대학생이고, 아래쪽은 남자 대학생임.

* $p<.05$, ** $p<.01$, *** $p<.001$

<표 5> 여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모형 1(사회·인구학적 특성)		모형 2(부모와의 애착)		모형 3(교육 양성평등의식)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학 년	.79(.76)	.11	.86(.77)	.12	.78(.76)	.11
연 령	.14(.48)	.03	.08(.48)	.02	.10(.47)	.02
가족소득	1.05(.45)	.20*	.93(.45)	.18*	.90(.45)	.17*
어머니 직업 ^a	2.62(1.83)	.12	2.69(1.82)	.12	2.53(1.80)	.11
아버지 직업 ^a	-3.08(1.32)	-.20*	-3.08(1.29)	-.20*	-3.05(1.27)	-.20*
어머니와의 애착			.12(.05)	.24*	.11(.05)	.23*
아버지와의 애착			-.01(.05)	-.02	-.01(.05)	-.02
교육 양성평등의식					.16(.07)	.07*
상 수	58.97(8.78)		49.73(9.54)		36.98(10.91)	
R^2	.08		.13		.16	
ΔR^2			.05*		.03*	
Adjusted R^2	.05		.09		.12	

* $p<.05$

a. (1=전문직 또는 관리직, 0=기타)

<표 6> 남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변 수	모형 1(사회·인구학적 특성)		모형 2(부모와의 애착)		모형 3(교육 양성평등의식)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학 년	-.84(1.22)	-.10	-.67(1.25)	-.08	-.77(1.25)	-.09
연 령	-.22(.35)	-.09	-.214(.35)	-.10	-.24(.35)	-.10
가족소득	-1.26(.76)	-.22	-1.22(.77)	-.22	-.98(.80)	-.17
어머니 직업 ^a	-6.20(3.04)	-.23*	-6.15(3.10)	-.23*	-5.98(3.00)	-.22*
아버지 직업 ^a	6.39(2.38)	.36*	5.73(2.45)	.33*	5.14(2.49)	.29*
어머니와의 애착			-.001(.10)	-.01	-.01(.10)	-.10
아버지와의 애착			.08(.09)	.80	.05(.10)	-.11
교육 양성평등의식					.11(.09)	.15
상수	80.00(7.43)		73.08(9.53)		66.62(10.95)	
R ²	.19		.21		.23	
ΔR^2			.02		.02	
Adjusted R ²	.13		.13		.13	

*p<.05

a. (1=전문직 또는 관리직, 0=기타)

제시되어 있는데,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관련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두 가지로 검증하였다. 먼저,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여자 대학생의 경우 1.02에서 2.06 사이에 분포하고 남자 대학생의 경우 1.05에서 2.85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염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Myers, 2000). 또한, 회귀식의 Durbin-Watson 통계치는 여자 대학생에 대하여 2.05, 남자 대학생에 대하여 2.11로서, 변수들의 오차간 자기 상관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여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각 단계의 변수들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독립변수들이 성취동기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R²)는 8, 13, 16%로 증가하였으며, 각 단계별 R²의 증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장 설명력이 많이 증가한 단계는 모형 1에서 모형 2단계로서, 부모와의 애착 변수가 추가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이 .08에서 .13으로 .05 증가하였다. 각 단계별로 독립변수가 추가 투입됨에 따라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여자 대학생의 성취동기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임을 뜻한다. 각 단계에서 독립 변수들이 여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관련되는 정도는 마지막 단계인 모형 3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형 3에서 여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변수는 가족소득, 아버지 직업, 어머니와

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었다. 이 중 가족소득, 어머니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은 성취동기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 아버지 직업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즉,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성취동기 또한 높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그렇지 않은 여자 대학생보다 성취동기가 더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중 여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대한 상대적 관련성이 가장 높은 변수는 어머니와의 애착($\beta=.23$)이었다.

다음으로, 남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각 단계의 변수들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독립변수들이 성취동기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R²)는 .19, .21, .23으로 증가하였으며, 각 단계별 R²의 증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1에서 모형 3까지의 최종 설명력 .23에 대하여 모형 1의 설명력이 가지는 비중은 82.6%로서, 남자 대학생의 성취동기 변량은 부모와의 애착이나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보다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성취동기가 투입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남학생(R²=.23)이 여학생(R²=.16)보다 더 많았다.

각 단계에서 독립변수들이 남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관련되는 정도는 마지막 단계인 모형 3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형 3에서 남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변수는 어머니 직업과 아버지 직업이었다. 이 중 어머니와 소득은

남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 아버지 직업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즉,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그렇지 않은 남자 대학생에 비하여 성취동기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그렇지 않은 남자 대학생보다 성취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중 남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대한 상대적 관련성이 가장 높은 변수는 아버지 직업($\beta=.29$)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애착과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을 선정하고 이들이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3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수집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조사대상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부모와의 애착 정도는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 어머니와의 애착 수준이 아버지와의 애착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성취동기,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의 성차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성취동기, 어머니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취동기의 경우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의 경우 남자 대학생의 성취동기가 여자 대학생에 비해 더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이재창·유계식, 1996; Fan & Zhang, 2009)를 지지한다. 반면, 어머니와의 애착은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애착의 성차는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모의 성에 따른 애착의 차이,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유의하여,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더 많이 지각하였으나, 부모애착에 대한 자녀의 성차는 존재하지 않아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모애착 점수는 다르지 않았다(김수희, 2009). 이는 Armsden과 동료들(1990), Lamb(1981), 그리고 Haigler 등(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모애착의 성차를 분석한 연구결과(장영은, 2010)에 따르면 여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애착 점수가 남학생의 점수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아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애착에서 성차가 존재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장영은(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부모와의 애착에서 성차의 존재 여부는 일관

되지 않으므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머니와의 애착과 더불어,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의 경우에도 여자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남자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결과(김양희·정경아, 2000)와 일치하는 결과로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에 성차가 존재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결과이다.

둘째, 대학생의 성취동기는 어머니와의 애착 및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은 어머니와의 애착 및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성취동기와 부모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성취동기가 어머니와의 애착,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나, 남자 대학생의 경우 성취동기는 어머니와의 애착,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 및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성취동기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결과(김지혜, 2009)와 비교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상관관계 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성취동기가 부모와의 애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여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에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보다는 어머니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 등 환경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남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에는 부모와의 애착, 교육 양성평등의식 등 환경적 요인보다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 설명해 볼 수 있다. 청소년 및 성인기에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자아개념이나 진로의식성숙도와 애착의 관련성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학생의 경우에 애착이 자아개념에, 그리고 다시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남학생의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밝혀졌다(장영은, 2010)이며,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간의 관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그 관계의 강도가 더 강함을 밝혀졌다는 점(Laible et al., 2004)을 고려해 볼 때,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부모와의 애착이나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에서 성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들 변수가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입된 변수들의 성취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여자 대학생

16%, 남자 대학생 23%로서, 회귀식이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더 많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개별적인 독립변수가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학생에게 유의한 변수가 더 많았다.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직업만이 유의하게 성취동기와 관련되어 있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가족소득, 아버지 직업, 어머니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성취동기와 관련되어 있었다. 독립변수들이 성취동기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로 볼 때에는 제한된 회귀분석 모형이 남학생의 성취동기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각 독립 변수들이 성취동기를 설명하는 유의도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여학생에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남학생의 성취동기와 관련되는 독립 변수를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성취동기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다양하게 탐색하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남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변수는 어머니 직업과 아버지 직업이었는데, 이 중 어머니와 가족소득은 남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 아버지 직업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즉,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남자 대학생에 비하여 성취동기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남자 대학생보다 성취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변수는 가족소득, 아버지 직업, 어머니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었다. 이 중 가족소득, 어머니와의 애착,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은 성취동기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 아버지 직업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즉,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성취동기 또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수준이 높고, 지적 활동에 대해 칭찬을 할 경우 자녀의 성취동기가 높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성취동기와 정적인 관련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이운경·도현심, 2005; Zimmerman et al.,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의 전문직이 성취동기와 부적으로, 남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의 전문직이 성취동기와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나, 남자 대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전문직이 성취동기와 부적인 관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애착 형성이 어머니의 직업 특성과 관련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여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여자 대학생의 성취동기 향상에 어머니와의 애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어머니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지역의 대학생들을 편의적으로 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전국적 규모의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대학생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의 남녀 대학생 비율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훨씬 많다는 점 역시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유사하도록 연구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연령대로부터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신념의 차이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석·박연희(2008).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7(1)**, 41-54.
- 강원덕·안귀여루(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61-175.
- 강재순(2007). 중고생의 성별과 계열에 따른 양성평등 의식과 진로자아효능감.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경숙·한아름(2007).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의 관련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269-1278.
- 권희경(1997). 개인특성 및 성장환경과 가족특성에 따른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성취동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희경(2006). 경남 지역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기초조사. *창원대학교 생활과학 연구*, **10(1)**, 1-13.
- 김수희(2005).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정경아(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3-44.
- 김우영(2003).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노동정책연구*, **3(1)**, 67-101.
- 김원경(2008).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인지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문혁준(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1)**, 115-129.
- 김지혜(200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 자아존중감, 성취동기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남희·박경자(2009). 소년소녀가장의 탄력성과 관련된 개

- 인특성 분석: 지능, 성격,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05-123.
- 박영신 · 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배성연(2005). 취업모 자녀의 사회 정서적 행동 반응 관련 요인: 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미영 · 권희경 · 장영은(2010).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력, 성취동기와 직업 양성평등의식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3)**, 115-124.
- 손경화 · 조복희(2009). 취업신념 측정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2)**, 69-78.
- 유계식 · 이재창(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259-288.
- 이사라 · 박혜원(2005). 부모, 또래, 교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 및 청소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5)**, 163-181.
- 이운경 · 도현심(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3)**, 43-59.
- 이재창 · 유계식(1996).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 진로결정유형 간의 관련분석과 이들 변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13**, 111-145.
- 장영은(2009). 어머니의 취업관련 태도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정관리학회지, **27**, 111-122.
- 장영은(2010).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도에 애착과 자아개념이 미치는 영향: 성차,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에 관하여. 대한가정학회지, **48(6)**, 1-13.
- 조지혜(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효숙(2008).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과 성취동기 및 자아존중감 관계 연구. 부산교육연구, **21**, 75-96.
- 탁수연 · 박영신 · 김의철(2006).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6(1)**, 143-153.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6**, 427-451.
- Armsden, G. C., McCaulye, E., Greenbuerg, M. T., Burke, P. M., & Mitchell, J. G. (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683-697.
- Beere, C. A., King, D. W., & King, L. A. (1984). The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A measure of attitudes toward equality between the sexes. *Sex Roles*, **10**, 563-576.
- Belsky, J. (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 1-9.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 416-432.
- Bowlby, J. (1982). *Attachment*. N.Y.: Basic Books.
- Brooks-Gunn, J., Han, W., & Waldfogel, K. (2002).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cognitive outcomes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3**, 1052-1072.
- Caldwell, T. & Obasi, E. M. (2010). Academic performance in African American Undergraduates: Effects of cultural mistrust, educational value, and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 348-369.
- Chang, Y. E. (2003). *Mothers' attitudes toward maternal employment, maternal well-being, maternal sensitivity,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outcomes: When mothers engage in different amounts of employ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Clarke-Stewart, K.A. (1989). Infant day-care: Malignant or malignant? *American Psychology*, **44**, 266-273.
- Fan, W., & Zhang, L. (2009). Are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inking styles related? A visit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 299-303.
- Gomez, R., & McLaren, S. (2007). The inter-relations of mother and father attachment, self-esteem and aggression during late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33**, 160-169.
- Greenberg, M. T., Siegal, J. M., & Leitch, N.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2**, 373-386.
- Greenberger, E., Goldberg, W. A., Crawford, T. J., & Granger, J. (1988).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35-59.
- Haigler, V.F., Day, H.D., & Marshall, D.D. (1995). Parental

- Attachment and Gender-Role Identity. *Sex Roles*, 33, 203-220.
- Harvey, E. (1999).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early parental employment on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35, 445-459.
- Hock, E., & DeMeis, D. K. (1990). Depression in mothers of infants: The role of maternal employ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83-291.
- King, L. A., & King, D. W. (1997).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Development,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71-87.
- Lapsley, D., Rice, K., & FitzGerald, D.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561-565.
- Learner, D. G. & Kruger, L. J. (1997). Attachment, self-concept, and academic motivation in high-school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 485-492.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8). Early child care and self-control, compliance, and problem behavior at 24 and 36 months. *Child Development*, 69, 1145-1170.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65-376.
- Speirs Neumesiter, K. L., & Finch, H. (2006). Perfectionism in High-Ability Students: Relational Precursors and Influences on Achievement Motivation. *Gifted Child Quarterly*, 50(3), 238-251.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83). Achievement-related motives and behaviors. In J. T. Spence (ed.), *Achievement and achievement motives: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approaches* (pp. 7-74).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 Turner, E. A., Chandler, M. C., Heffer, R.H. (2009).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efficacy on academic performanc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 337-346.
- Wong, E. H., Wiest, D. J., & Cusick, L. B. (2002). Perceptions of autonomy support, parent attachment, competence and self-worth as predictor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n examination of sixth-and ninth-grade regular education students. *Adolescence*, 37, 255-266.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s, M.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 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Journal*, 29, 663-676.

접수일 : 2011년 05월 15일

심사일 : 2011년 06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07월 22일